**마2337 Note**

**◆이정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하나님도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위의 말씀에서 보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함께 모으실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으실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있고, 사람의 뜻과 의지가 별도로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빛의 말씀, 약되는 말씀을 주셨으며,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마귀도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를 자기 맘대로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에 따라, 우리가 상급도 받고 처벌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십일조

를 내도록 하실 수는 없습니까?

Ω막1615.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라, 너희는 온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낱낱의 족속(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선포)하라

막1616. 믿고, 침례(잠겨 하나로 됨/밥티조:물에 잠그다, 완전히 젖게하다, 적시다, 착색하다)를 받는 그는 구원되느니라, 그러나 믿지 않는 그는 지옥에 떨어지느니라 (카타크리마:불리한 판단을 하다,선고하다,정죄하다,저주하다).

믿고, 침례받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